

## 의무실에서 보람을 느끼며



한국전지(주) 김영란

싹싹 싹싹 이를 닦자.  
깨끗이 깨끗이 이를 닦자.  
하얀거품 보글보글 물을 먹고 꼬르륵……

이 노래는 유치원에 다니는 조카가 곧잘 흥얼거리는 노래이다. 손을 닦고 이를 닦는 기본적인 보건교육조차 되어 있지 않은 불모지가 나의 첫 일터로 정해졌다.

모든것이 생소하고 특히 회색빛 작업복과 공단의 회색빛 하늘은 나를 유난히 견디기 힘들게 하는 것 중의 하나였다. 대형사고는 없지만 작은 외상이나 화상이 몇건씩 일어나곤 한다. 처음 내가 근무하면서 무척이나 놀랐던 것은 상처가 나면 의무실을 곧장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의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온다. 피가 나는 곳에 담배꽂초를 붙여 오거나 화상을 입은 자리에 치약을 덕지덕지 바르고는 화끈거리는 작열감때문에 견디기 힘들게 되어서야 겨우 의무실을 찾아오곤 했다.

그들은 병원가기 싫어하는 어린애들 마냥 의무실 기피현상이 두드러지게 보였다. 그래서 나의 첫 임무는 의무실에 대한 자세한 안내임을 깨달았다. 신설된 의무실인 까닭도 있었지만 그들은 나를 이색인간, 자기들과는 동떨어진 이방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이 문제때문에 고민도 많이 했지만 언제까지나 이방인일수는 없었다.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과 함께 고락을 같이 하는 가장 친근한 벗이 되고자 나름대로의 방법이 시도됐다.

먼저 의무실에 관한, 그리고 보건상식 수준을 알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예상대로 결과는 천태만상이었다.

‘아는 것이 병이다’라는 말을 생생히 실감할 수 있었다. 조금 아는 잘못된 건강상식때문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일도 많았고 짤막한 의학상식만으로 요즘 흔히들 말하는 건강염려증에 걸려 있는 사람도 많았다.

보건상식의 보편화 및 수준향상이 자연히 나의 두번째 임무로 정해졌다.

의무실 업무가 사고후 처치보다는 예방업무에 치중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특별한 교육시간이나 활동시간을 내기가 어려워 게시판을 이용한 지면보건교육을 실시했다. 30-40대의 남자근로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농담들도 던지곤 한다. 거기에 익숙해지지 까지는 상당한 개인적인 고충이 뒤따랐다. 늘 기계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어서인지 때론 상당히 거칠지만 이렇게 한데 어울려 생활하다 보니 어느새 투박한 정들이 들었나 보다. 이제는 회색빛 작업복이 주던 거부감도 어느정도 해소되었고 작업자들 역시 스스럼없이 나를 대해준다.

휴일 다음날이면 의무실은 유난히 붐빈다. 덕분에 숙취후의 처방은 도사가 되어 버렸지만 표정들도 갖가지, 호소 방법도 다양하다.

밀쑹한 웃음을 짓는가하면 여유있게 농담까지 하면서 들어온다.

연속되던 외상치료가 거의 끝나갈 쯤이면 손에 가만히 건네주는 껌, 비스킷 등 값지고 소중한 선물들을 몇적은 웃음과 함께 건네주고는 황급히 나가곤 한다.

개구장이들 마냥 짓궂은 농담이나 곧잘 화를 내곤 하는 그들이지만 정녕 밋지만은 않은 것이 이제 는 내가 이방인이 아님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닐까.

오늘도 회색인(Greyman-내가 임의로 붙인 별명이다)들을 만나러 힘찬 발걸음을 옮긴다.

여기저기에서 “반갑습니다”라는 인사가 들려오고 이렇게 또 나의 하루는 시작되는 것이다.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그들의 안전과 건강을 빌어본다.